



“싸우지 맙시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들이 16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의장-원내대표 회동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운영위원장 홍영표·법사위원장 여상규

국회 원구성 완료...정무위 민병두·예결위 안상수 등 선출
권은희·정인화·서삼석·송갑석, 예결위 ‘국비 확보’ 창구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등 16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하며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사실상 완료했다.

운영위원장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가 선출됐다. 홍 위원장은 총 투표수 278표 가운데 265표의 찬성표를 얻었다.

법제사법위원장에는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정무위원장에는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과 노응래 의원은 각각 기재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뽑혔다. 같

은 당 안구백 의원은 국방위원장에, 인제근 의원은 전혜숙 의원은 각각 행안위원장, 여가위원장을 맡았다.

한국당에선 김학용(환경노동위원장)·강석호(외교통일위원장)·홍일표(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명수(보건복지위원장)·박순자(국토교통위원장) 의원이 각각 해당 상임위원장에 뽑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선출됐다. 정보위원장은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장은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국회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유인태 전

의원을 신임 국회 사무총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승인했다. 아울러 국회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를 교육위와 문화체육관광위로 분리하고, 윤리특별위원회를 비상설특별위원회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은 이날 저녁 재개한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교육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선출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하기로 했다.

이처럼 국회가 지난 13일 국회의장단을 선출한 데 이어 이날 상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서 20대 국회 후반기 첫 임시국회인 7월 국회가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다.

한편,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경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을 비롯, 민주당 이개호·서삼석 의원, 무소속 손금주 의원이 포함됐다. 외교통일위에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 평

화당 천정배 의원,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그리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는 민주당 송갑석 의원과 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각각 배정됐다.

또 행정안전위에는 바른미래당 주승용·권은희 의원, 평화당 정인화 의원, 법제사법위에 평화당 박지연 의원, 정무위에 평화당 장병완 의원, 환경노동위에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 평화당 김경진 의원, 국토교통위에 평화당 윤영일 의원이 각각 배정됐다. 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분리된 문화체육관광위에서 활동하게 됐다.

예산결산특별위에는 바른미래당 권은희, 평화당 정인화, 민주당 서삼석·송갑석 의원 등 4명이 들어가 광주·전남지역의 국비 확보의 ‘창구’ 역할을 하게 됐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전대 ‘김부겸 변수’ 부상

靑 개각 포함 여부 주목...이해찬, 金 행보따라 입장 정리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 가도에 개각 변수가 부상하고 있다. 유력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김부겸 행안부 장관의 출마 의사가 여전히 강한 것으로 전해져 막판 개각 포함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해찬 전 국무총리도 김 장관 거취를 지켜본 뒤 출마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김 장관의 행보가 결국 전대 판세를 뒤집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당내에서는 후보 등록 마감일인 21일 이전 개각이 단행될 경우 김 장관 거취가 자연스럽게 정리되며 전대 구도가 윤곽

을 잡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또 개각이 후보 등록 이후로 이뤄질 경우, 김 장관이 자신의 거취를 결단하게 여지를 둘 수 있다는 분석까지 흘러나온다. 의원 신분인 김 장관은 16일 본회의가 열리는 국회를 찾아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당 대표 출마를 결정한 주자들은 중앙위원들과 접촉면을 넓히며 ‘표밭 다지기’에 나섰고, 방송 출연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 등을 통해 비전, 공약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한국당 비대위원장 김병준 유력

의총 충돌없이 마무리...이르면 오늘 확정

자유한국당은 1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장 인선 등 당의 진로를 논의했다.

애초 팽팽한 긴장감이 흐를 것으로 예상됐던 이날 의총은 예측을 깨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특히 비대위원장 선출을 앞두고 김성태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한 친박(친박근혜) 성향 의원 등 일부 잔류파 의원과 김 대행 등 바른정당 출신 북당파 의원들이 충돌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지만 양측 모두 극한 갈등은 피했다. 당내에선 다음날 예정된 비상대책위원장 선임을 위한 전국위원회를 앞두고 비대위원장 선호도 투표까지 해 당내

갈등은 ‘봉합 수순’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당은 또 이날 의원총회에서 비대위 준비위원회가 압축한 후보 4인(김병준·박찬종·김성원·전희경, 이용구 거부)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했다. 김 권한대행은 의총을 마친 뒤 “선호도 조사 결과를 참고로, 이르면 오늘 중으로 비대위원장 후보를 확정하겠다”며 “내일(17일) 전국위에서 비대위원장을 원만하게 선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쇄신을 이끌 비대위원장 최종 후보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가 유력하다.

/박지경 기자 jkpark@

정동영 “책임정당·현장중심 정당 만들 것”

광주서 평화당 대표 출마선언 ... 유성엽 의원도 출마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이 16일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앞서 지난 주말에는 정동영 의원이 광주에서 출마선언을 하고 “평화당을 책임정당, 현장 중심의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로 출마했던 4선의 정 의원이 출사표를 던짐에 따라 평화당 당 대표 선거에도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경제정당, 민생정당, 민주정당이 되는 것만이 평화당을 실력있는 대안세력, 자기

수권정당으로 자리 잡게 할 것”이라며 경제 당 대표를 표명하는 출사표를 던졌다.

이에 앞서 정 의원은 지난 14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공원에서 당권 도전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환의 시대에는 길잡이가 필요하다. 저 정동영이 할 수 있다”며 “남북교류와 평화를 만들어 본 경험과 신념, 민생개혁과 당을 주도했던 철학과 노선, 정치적 추진력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내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 의원은 “평화당은 경제민주화 제도개혁의 책임정당이 되겠다. 진보적 민생주의가 우리의 길”이라며 “삶의 조건을 향

상시키는 일이 개혁이고 진보다. 실패한 보수, 답이 없는 중도가 아닌 진보적 민생주의로 불평등 없는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평화당이 정부여당의 경쟁자이자 대안으로서 존재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이 실패할 경우 민주개혁세력의 바통을 넘겨받을 다음 주자, 믿을 수 있는 대안정당이 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특히 평화당을 민생·현장에서 숨쉬는 정당으로 거듭 나게 만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민생의 가장 본질인 밥의 정치, 갑질과 싸우는 진보적 민생주의를 통해 평화당을 경제민주화와 제도개혁의 책임정당, 국민의 맘과 눈물이 있는 현장 중심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유성엽

정 의원은 “평화당을 민생개혁노선에 기반을 둔 작지만 강한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출마했다”며 “전국적인 지명도와 추진력 등 정치적 능력을 갖춘 당 대표가 민생개혁을 힘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선거제 개혁으로 다당제 기반 합의제 민주주의 체제로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임동욱 기자 tuim@

송갑석 “北 여종업원 기획탈북 진상규명을”

국회서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16일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북한 여종업원 기획탈북 의혹과 관련해 현 정부가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13 재선거를 통해 국회에 진출, 광주의 유일한 여당 의원이 된 송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건은 과거 국정원이 총선을 앞두고 벌인 기획탈북이라는 사실이 유엔 조사를 통해 공식 확인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비록 전 정부의 일이지만 (현 정부가) 사실을 규명하려는 철저한 노력 없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정만



해서는 안 된다”며 “새로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서라도 정보기관 이자행한 적폐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

다”고 강조했다.

또 송 의원은 “집권여당의 의원으로서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서 ‘불편한 진실’을 그냥 모른 척해야 할지 고민했다”며 “치졸한 북공공작인 기획탈북으로 정보기관이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를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상가건물 매매 [신축 상가주택]



▣ 월곡시장 2분(일신아파트 · 부영아파트 부근)
산정공원 바로앞 (코너)

▣ 공실 없음 (항시 임대대기)

▣ 1층 ★상가 2칸★

▣ 2층~3층 (원룸 9개) (투룸 2개)

▣ 4층 (최고급 주택)

★ 공원앞 전망최고 ★

보 9천 · 월 600만 (용3억)

▶매가 9억5천만

010-7384-7800 010-6670-9800

상가매매(수익형)

상무지구 중심구역(12층중 6층 상가)
롯데마트 앞
19평 (모든 업종가능)
보5백 월 40만

▶시세 1억
매가 6천300만

원룸빌딩 매매

- ① 산정동(1층코너 상가)
(원룸 15개)(합16개)
월세 600만 ▶ 매가 8억8천
- ② 월곡동 산정공원 1분(1층,상가칸)
2층~4층(원룸12개)(투룸3개)
▶ 매가 8억7천만 (월세 590만)
- ③ 월곡동시장 2분(원룸12개, 투룸2개)
총 14개 (월수익 550만)
▶ 매가 8억4천만
- ④ 전대정문2분 (원룸18개, 안집1개)
보7천만 월700만
▶ 매가 12억8천만 (용 3억5천만 가)

010-6670-9800
062-382-5500